

손 소독제

뉴스를 보며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집 주위에 있는 마켓 몇 군데를 가 보았다. 그런데 손소독제 구입하기가 불가능했다. 어디를 가도 물과 휴지를 사기위하여 난리다. 나는 집에 미리 사둔 것이 많이 없는데 마켓에서 구입할 수 없으니 더 불안해 진다.

그런데 손세소독제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손을 정성껏 잘 닦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 다음 날 또 다시 손소독제를 구하려 몇 군데를 가 보았으나 실패다. 그래서 91% 알코올을 구입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린다. 잠깐 동안 알코올 냄새가 독하지만 그 냄새가 지금은 향수 냄새보다 더 낫다.

왜 그리 불안할까? 폐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피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 길이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오늘 큰 것을 깨달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이다. 목사인 내가 왜 그 생각을 먼저 못했을까? 많이 부끄러웠다. 내가 손소독제를 사려고 여기저기를 다녔던 것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불안함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건강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말이다.

하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3장 18-20절)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모르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날이 감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끝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다. 걱정이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혹독한 일들도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손 소독제는 필요한 것 같아 어디서 살지 생각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전부 채워주셨다. 아침 7시에 가니까 마켓에 있더라고 큰 비밀을 알려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마켓에 가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혹시 그 성도님과 손소독제 파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소독제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때에 걱정과 근심은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